

무엇보다 비자문제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신 중보 기도의 용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 겠습니다. 보통은 1달만에 비자가 나오는 것이 정 상인데 이상하게도 저희는 6개월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문제해결은 이 문제를 나 누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 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 서 잠자는 아이들을 차에 밀어넣고서 15시간을 서지 않고 운전해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태이어가 다 닳아서 펑크나기 일보직전에 있음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서 선교사들의 차량사고의 대부분이 노후한 차량과 타이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저마다 장거리 운전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의 장거리운전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평소 차량관리가 필수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비자문제로 고민하며 주님께 매달려왔는데 지난 주 극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지체했다면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내고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뻔 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비자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주심으로 분명한 증거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을 홍해가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전차가 그들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바다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저희도 바로 그렇게 인도해주셨습니다. 이러다가 이 땅에서 사역은 커녕 그냥 추방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중에 주님은 극적으로 해결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저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저희 사역의 비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같이 염려하며 기도로 싸워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10만 그루의 자카란다에서 피어난 은은한 보라색 꽃들과 짙은 초록색 잔디와 나무들이 어우러진 봄입니다. 한국은 겨울로 가는 중이지만 지금 이곳은 여름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낮의 햇볕은 너무 따가워서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건조하기에 그늘에만 있으면 땀칩니다.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곳에 와서 아프리카의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이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새로운 땅과 사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가을과 겨울을 보내면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봄을 맞이하면서 봄눈 녹듯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비자도 해결되었고, 그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집에서만 공부했는데 저희 딸들을 받아주겠다는 학교를 만났고, 현지는은행 계좌도 개설하였고, 6개월 동안 남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했었는데 이 문제도 즉시 해결했고, 또 무엇보다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큰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삿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월세만 100여만원이 지출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게스트룸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나라에서는 11월과 12월에는 월셋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월세 4840란드의 하우스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자문제해결부터 자동차와 아이들 학교 그리고 집계약 등 일련의 모든 일들이 봄눈 녹듯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고 감탄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듯 합니다. 우선 2월부터 6개월 정도 한국에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저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숙식을 하며 언어와 선교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서울과 대구 등에서 적지 않는 분들이 방문을 희망하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품었던 꿈대로 한국교회도 섬기고 이 땅의 영혼들도 섬기는 일들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영어도 배우고 동시에 선교도 경험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크나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현지신문을 통해 중국이 이 나라의 최대 무역국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까닭은 아프리카의 성장가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아공이 선교지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6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흑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규신학과 성경공부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찬양과 노래와 춤은 열정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과 묵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처럼 기도예에 대한 훈련도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은 흑인 목회자들을 기도와 묵상과 성경연구 등으로 재교육하는 것과 차세대 지도자가 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제자훈련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모든 교인들의 모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러하니 아프리카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서 심각한 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인들의 재산 때문에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흑인들은 매우 가난하며 오래동안 시행되어왔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흑인들의 교육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바닥수준입니다. 그러기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감염률 1위에, 국가부도위험률 1위 즉 짐바브웨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이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주의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1. 항상 성령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2. 온 가족이 건강하며 특히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에 입학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12월 1일에 새로 이사하게 되는 집이 선교센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사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설교학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과 함께 애찬식



시험시간-시험에 대한 공포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



제2차 스포츠 데이 행사-신발 멀리 던지기 대회



마멜로디 위십 센터 교회에서 설교후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딸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주.시.고



케이프타운 테이블마운틴에서

※파송교회 및 선교단체

*대구아펜교회-www.dgamen.kr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95번지 (담임 최봉우 목사)

*한국기아대책기구-www.kfhi.or.kr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11번지

❖연락처

-(사서함주소) P.O.Box

1175 Garsfontein Pretoria, RSA 0042

-집전화: 001-27-12-348-1421

-인터넷전화 070-7526-9559

-셀폰

001-27-79-018-7009(김광락)

001-27-79-018-7007(조성라)

-이메일

revkimgl@hanmail.net

africa91@ymail.com